

울산대학교人文社會系 제17권(인문·사회과학) 제2호 pp.37-53. 1986.
UOU Report Vol. 17.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No. 2 pp. 37-53. 1986.
University of Ulsan.

經濟學說史上에 있어서의 勞動價值論의 展開에 대한 一考

金 相 溫

經濟學科

(1986. 4. 1 접수)

〈要 約〉

本考는 經濟學의 基本的研究對象의 하나인 價值論을 資本主義經濟에 대한 分析의 기초라는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價值論中에서 客觀的 價值學說이니 費用價值說인 勞動價值論은 아담 스미스, 대이비드 리카아도, 칼 마르크스 등의 理論展開를 통해 살펴 본다.

스미스는 價值論을 최초로 經濟學에 도입하여 價值의 概念을 定義하고 使用價值와 交換價值를 区別했으나 또 다른 交換價值의 真正한 尺度로 勞動을 세사했다. 그러나 그는 價值論의 展開에 있어 몇 가지 단계에 부딪치고 그에 대한 解決이 리카아도에게 課題으로 넘겨지게 된다. 리카아도는 商品의 交換價值는 投下勞動量에 比例하나는 投下勞動價值說을 몇 가지 修正을 거치며 내놓는데 그 역시 勞動價值論의 정교화에 成功하지는 못한다. K. Marx는 勞動價值論으로부터 [잉어가치]에 관한 설명을 해내고 잉어가치가 어떻게 利潤으로 轉形되는가라는 问题 모인다. 따라서 價值의 生產價格으로의 轉形問題를 提起하게 된다.

勞動價值論은 近代經濟學의 視角과는 대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研究는 資本主義經濟에 대한 研究에 큰 도움을 제공한다.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abor Theory of Value in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Kim, Sang On

Dept. of Economics

(Received April 1, 1986)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the theory of value to analyze the basis of the capitalism. Among the various theories of value, this paper studies the labor theory of value, the objective value theory by scrutinizing the development of theories of Adam Smith, David Ricardo and Karl Marx.

Smith introduced the theory of value to define the value concept, to distinguish the value in use from the value in exchange in economics and presented the labor as the real measure of value in exchange. However he could not overcome the several deficiencies. The task of completion of the labor value theory transferred to Ricardo.

Ricardo insisted that the exchange value commensurates with the quantity of labor bestowed on the production of commodities. His theory modified Smith's theory in several particulars, but still lacked the elaboration. Karl Marx explicated the surplus value in the labor value theory and showed how the surplus value transformed into the profit. Hence he raised the transformation problem of the value into the production cost.

The Labor value theory is opposite with modern economics in the viewpoint of the structure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Nevertheless, the research of the labor value theory elucidates the capitalism.

I. 序

經濟問題는 市場에서 形成되는 財貨나 用役의 價格을 以개로 하여 展開되어 財貨나 用役의 價格은 價值의 本性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價值에 관한 研究는 非常히 重要하다고 할 수 있다. 주 價值의 實體는 무엇이며, 나타나는 樣態에 따라서는 어떻게 그리고 일마련한 끄기로 表現되는가, 使用價值와 交換價值間に 어떤 관계가 있는가, 交換價值를 規定하는 要因은 무엇인가 하는 問題들과 또한 영어기기의 도구, 價值의 生產價格으로의 轉形問題 등을 살펴 보려 한다.

價值은 經濟學的으로는 人間의 欲望을 充足시키는 財貨의 程度라고 定義될 수 있다. 그로니 어떤 商品이 人間의 欲望을 充足시킨다고 한 때의 具體의 價值은 個別商品이 갖고 있는 有用性 즉 使用價值(value in use)를 意味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商品은 市場에서 來去할 때 交換價值로 그 크기가 表現된다. 交換價值라는 것은 各種財貨들이 서로 그 쓰임새는 다르면서도 相互交換될 수 있다는데서 드러난다. 相互交換되는 財貨들 속에는 각각 内在하는 그 무엇이 同異있나 생각할 수 있다. 通常 財貨에 内在해 있다고 推定되는 그 무엇은 質은同一하며 量에 있어서만 各財貨에 따라 나를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을 價值이라고 부르며 價値가 市場에서 드러나고 表現되는 것을 交換價值라고 한다. 財貨는 交換價值를 갖고 있으며 나쁜 財貨와 一定比率로 交換된다. 이때 서로 交換되는 兩財貨는 相異한 有用性을 갖고 있으므로 具體적으로는 比較가 곤란하다. 그러나 抽象의 面에서는 交換價值라는 형태로 나타나 相異한 用途를 갖는 財貨間의 比較를 可能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相互他財貨를 支配하는 位置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他財貨를 支配한다 함은 어떤 財貨를 所有함으로 인해 다른 財貨를 직접 생산하기 않고도 수에 넣을 수 있다는 데를 뜻한다.

交換價值의 本質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있어서는 財貨속에 있다고 여겨지는 抽象的 價值의 本質을 形成시켜 주는 것이 生產費이고 보는 費用價值學說, 財貨가 지니고 있는 具體의 有用性이 交換價值를 構成하는 本質이라고 보는 効用價值學說, 그리고 兩說을 折衷하는 折衷價值學說, 또한 價値는 價格決定에 있어 무관하다고 보는 價值無用論 등이 있다. 이 中에서 生產費用 價值學說인 勞動價值論을 아담 스미스(Adam Smith), 대이비드 리카리도(David Ricardo), 칼 마르크스(Karl Marx) 等은 통해 살펴 본다.

II.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價值論

스미스는 그의 有名한 著書 「國富論」(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의 Book I, Chapter 4에서 價値를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The word VALUE, it is to be observed, has two different meanings, and sometimes expresses the utility of some particular object, and sometimes the power of purchasing other goods which the possession of that object conveys. The one may be called 'value in use', the other, 'value in exchange'."

즉 그는 價値를 나타나는 樣態에 따라 有用性을 나타내 주는 使用價值(value in use)와 財貨를 所有함으로 인해 갖게 되는 他財貨에 대한 購買力을 나타내 주는 交換價值(value in exchange)로 구분하고 있다. 使用價值는 각각 相異한 財貨가 獨立하게 갖고 있는 有用性으로 特定한 用途에서 各 財貨가 使用될 수 있는 그 쓰임새를 기정하는 것으로 客觀的인 角度에서 各財貨마다 用途의 끄기나 質이 나름은 卑微하거나의 主觀的인 角度에서도 同一한 財貨의 성우도 그것을 使用하는 經濟上體에 따라 각각 다른 用途내기로 나온 程度의 有用性으로 나나닌다. 다시 말해서 使用價值는 經濟上體의 主觀的 欲求의 程度에 따라 나나닌는 滿足度내지는 主觀的 價値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財貨本體를 使用價值라고 할 수 있다.

市場에서 來되는 財貨 즉 商品은 經濟上體의 欲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物質이다. 商品은 使用價值를 반드시 갖고 있으며 이내한 庫性때문에 使用價值를 갖고 있는 다른 財貨와 交換되는 것이다. 資本主義社會에 있어 시장이 財貨의 交換이 重要한 것은 아니다. 資本主義가 成立하기 以前의 社會에 있어가도 財貨間의 交換은 人間의 生活을 유지시키 주는 데 있어 필수적이었으며 財貨間의 交換이 成立하는 기반에는 未來에 関여하는 財貨가 交換당시자들에게 有益함을 주고 있는데에는 다름이 없었다. 즉 交換行為는 使用價值를 前提로 하고 있다는 말이다. 다만 資本主義以前의 社會에 있어서는 商品販賣를 前提로 하고 財貨를 生產하지는 않았으나 資本主義의 商品生產과는 다른 點이 있는 것이다. 資本主義의 商品生產下에서 生產의 目的은 自己消費가 아니라 不特定多數를 相對로 한 商品販賣에 있는 것이다.⁽¹⁾ 따라서 資本主義의 商品生產下에 있어 財貨에 대한 價値問題의 視角은 交換價値에 重點이 두어질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商品生產이 本格적으로 이루어지던 時代에 살았던 스미스에게는 價値論의 대상으로 使用價值보다는 交換價値가 重要하게 考慮되었을 것이다.

시로 나쁜 使用價值를 갖고 있는 商品들間의 交換에 있어서 더욱 重要한 것은 어떻게 각 商品들間의 交換比率를 決定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다시 말해 스미스가 價値問題에 있어 가장 먼저 關心을 두 것은 價値의 測定이었는데 商品의 價値를 測定하여 험 때 土觀의 有用性은 客觀的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아무리 주구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說明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交換價値만을 價値論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다. 그는 使用價値과 交換價値의 相互關係에 대해 兩者는 比例의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無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소위 스미스의 카리독스라고 알려져 있는 事實을 예로 들면 使用價値은 매우 그러나 交換價値은 매우 적은 물과 交換價値은 매우 그러나 使用價値은 매우 적은 다이아몬드의 경우를 들며 交換價値이 使用價値에 의해 規定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使用價値와 交換價値사이에 어떠한 定向關係도 갖지 못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제 交換價値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交換價値이 있는 경우 使用價値처럼 그 屬性이 商品自體에 内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하는 않으나 다만 財貨의 交換속에서 具現되는 量의 比較關係라고 할 수 있겠다. 한 種類의 商品이 다른 種類의 商品과 交換된다면 한 때 그 交換比率은 그 質에 있어서 상異한 것으로 주시되는 使用價値에 의해 決定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商品들 사이에 있어 어떤 共通의 有形性으로 表象되는 것에 의해 주성질을 가진 수 없다고 하였다. 즉 使用價値이 그 商品이 갖고 있는 有形性(usefulness)에 따라 나타내지는 것으로 土觀의 有形性인 것인 대비해 交換價値은 市場에서 來되는 商品들間의 相對的 有形性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來에 감가하는當事者는 물론 市場內에 있는 多數의 交易者들에 의해 認定되는客觀의 有形性이다.

이제 商品의 交換價値을 規制해 주는 原則를 研究하기 위해 스미스 자신이 提起하고 있는 세 가지 問題을 짐작해 보자.

첫째로 그는 交換價値의 確正한 尺度는 무엇인가 혹은 모든 商品의 真實價格는 어디에서 成立하는가하는 問題을 提起하고 있다. 이에 대해 交換價値의 真實한 尺度는 勞動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권수를 신의 몸을 오라불을 행할 수 있는 程度에 따라 부유하거나 빈한하나고 할 수 있는 分業이 완전히 行해지고 있는 經濟狀態下에서는 自己의 勞動으로 調達될 수 있는 財貨는 특히 一部分이고 大部分의 財貨는 他人의 勞動에 의해 生產된 것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신이支配할 수 있는 商品의 量~결국 이에는 他人의 勞動이 積聚되어 있으므로 他人의 勞動量이라고 할 수 있나~의 크기에 따라 부유하거나 빈한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므로 어떤 財貨의 交換價値은 그 財貨를 所有하고 있는 사람이 財貨를 市場에 기 處分함으로써支配할 수 있는 劳動量에 의해 表現될 수 있다는 것이다.⁽²⁾ 따라서 交換되는 財貨에 體化되어 있다고 주장되는 劳動量이 그 財貨의 價値를 나에게 주는 尺度라고 할 수 있느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支配勞動의 價値說이라고 한다.

(1) 좀더 극단적으로表現하면 商品生產經濟下에서 交換의 對象이 되는 財貨는 그 所有者가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効用을 인정하지 않는 바인생물이라고 할 수도 있다.

(2) 여기서 他人의 勞動은支配한다 한은 本人이直接勞動을 하지 아니하고도 他人이 小產하던 財貨를 獨自하여 使用하거나 또는 다른 用途로 處分하는 것임.

스미스는 또한 모든財貨의眞實價格 즉財貨를 얻고자 하는 사람의 진실로 지워야 하는費用과財貨를 얻는데는努力과 고동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財貨가 지니는交換價值는 그財貨를 사용하는데所要되는人間의努力과 고동의多寡에 따라決定된다는것이다. 이와 같은생각은投下勞動價值說이라고 하나 그는托馬斯·霍布斯(Thomas Hobbes)의 비율을引用하여富는權(power)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市場에 있는 모든商品 또는勞動生產物은支配할 수 있는권이라는데 것이다.

投下勞動價值說과支配勞動價值說은 언뜻 이해하기에는 서로 같은內容을 시사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면 그差異가 확실히 드러난 수 있다. 기령 절진을 한길에 갑는다고 한 때 投下勞動價值說에 의한 절진의交換價值는 절진을 삼는데 들어간 노력과 고동인 것이다. 다른 한편支配勞動價值說에 입가하던 절진이市場에서 상사 두류와交換된다고 할 때 절진의交換價值는 장작 두류등을 하는데 눈이 간他人의 노력과 고동인 것이다. 따라서支配勞動價值는 market에서他商品과의交換과정에서 느끼기 되는 것으로 投下勞動價值와支配勞動價值는 항상 일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投下勞動價值와支配勞動價值의不一致는資本主義社會가成立된以後에는一般的이된다. 즉, 土地의個人의私有나資本을所有하는資本家의 능장이 있는 초기비기의經濟下에서는財貨의交換價值는 그商品에投下된勞動量에 의해全的으로規定되나土地가特定한사람에게屬해지고資本의蓄積이 이루어진資本主義的經濟狀態下에서는利潤部分과地代部分이區가되어가야한다. 그래서 어떤商品이그자체에投下된勞動價值보다더많은他人의勞動價值를支配하여생기는超過部分이利潤인것이고投下勞動價值와支配勞動價值사이의不一致는地代가支拂된다는事實에 의해 더욱커지게된다. 따라서스미스에의하니商品의價值는投下勞動價值에利潤과地代를合한것으로構成되는데 이를一般生產費說이라부른다.

실퍼본 바와 같이 스미스는 그의價值論은展開함에 있어 그다시 일관성있는論議를 가지고있기는 못하나價值의唯一하고正確한尺度는勞動이며勞動에의해서만이相異한種類의商品의價值를比較할 수 있다고主張한다. 그러면勞動이價值의 유일하고 정회한尺度로機能하는데問題가없는가하면그렇지않다. 두商品을판드는데所要된勞動時間이같다고한기라도그勞動이質에있어差異가있어축률도, 곤란도,作業期間등이다를때두商品間의직접적交換比率은결정하는것은서운인이아니나. 무구한작업은순전히손으로만하고나쁜作業은기거나도구를使用하다고한경우는기거나도구를과거의다른노동자들의勞動이具體化된것으로보아過去勞動의現在化를통해서比較하고수집하고축률을要하는勞動은單純勞動의몇倍數로하면된다. 提小하고있으나그렇다고모든문제가나해결되지는않는다. 즉價格의구성요소中利潤은投下된勞動量에대해支拂되는것이아니고市場에投下된資材(stock)의量다시말해서投下資本의크기에따라決定되는것이다. 利潤은이때資本家가다른資本家보다지위감독하는수고의크기나난이도경영능력등의크기가다른에따라支拂되는것이아니라는것이다. 따라서價格은商品에投下된勞動과利潤의크기그리고地代에따라決定된다. 그런데地代는賃貸費用이므로점시집어두면相異한生產部門사이에서投下勞動量에대한投下資本의크기가다르면價格은投下勞動量에比例한수가없게되는것이다. 그밖에실제로서로다른生產部門사이에서單位勞動當資本量比率이다른것은주지의事實이다. 따라서이와같은상황下에서는交換價值가投下勞動量에의해決定될수는없는것이다. 결국그는이問題에대해서는해답을구하지못하고있다. 그러나스미스는異質勞動의同質化는market에있어서의去來나Honging에의해解결된다라고보았다.異質勞動에의해生產된商品등사이의交換比率을決定하는데어떤경회한기준을찾는것은不可能하기때문에日常의market去來에의해내각기교회비율이設定되는것이나당하다고함으로써勞動價值論의見解로부터다소벗어나고있다. 즉勞動價值論이라生產面에서의商品間의basic的關係가交換面에서의기본적관계,交換比率등을決定한다는見解로볼수있는네스미스의위와같은說明은도리어交換面에서의商品間의關係가生產面에서의價值形成比率을規定하는것으로勞動價值論의기본적시작과를비는것으로보인다.

商品價格의形成은生產側面에서決定되는것으로생각하는勞動價值論의見解는商品의價格이그商品에內在하는勞動價值에상응하도록決定되어야한나는것으로商品의價格決定이規範的인面에서人間의

努力이 들어가 없어치가 있는 만큼대로決定되는 것이 다당하다는 것으로 반야 들일 수 있고 商品價格이 需要側面의 効用充足可能件에 따라決定되어야 한다는 効用價值論의 見解는 商品에 内在되어 있는 人間努力의 크기가 이하든지간에 그商品이 需要者에게 일마단한 使用價值가 있는가 즉 需要者의 必要欲求를 얼마나 充足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느니에 따라決定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미스는 자신의 價值論 展開에 있어 交換價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使用價値는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그의 價值論은 効用價値論과는 無關한 것이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生產에 投下된 勞動에 의해 交換價値가決定된다는事實에 관해서도 일관성있게 說明하는데 실패하고 있었으므로 순수한 의미의 勞動價值論이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그러나 그가 社會內에 存在하는 많은 產業들間に 있어서 資本構成比가 다르고 그에 따라 商品의 價値가 投下勞動量에 比例하지 않는다는事實을 인식하고는 商品의 價格은 賃金, 利潤, 地代로 구성된다고 생각을 바꿨다고 해서 그의 價值論을 生產費價格理論(cost of production theory of price)이라고 부른다.

스미스는 價值論에 의한 價格形成에 관해 설명하면서 매일매일의 價格變動을 說明하는데 큰 重點을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價值論의 궁극적 목표는 商品의 價格形成에 관해 解明하는 것으로 보고 매일매일 變動하는 價格水準에 대해 說明하기 위해서는 市場價格으로, 또한 市場價格이 자주 變動할 때도 中心이 되는 어떤 價格水準이 있음에 대해서는 自然價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自然價格이란 商品의 價格이 土地의 地代, 勞動의 賃金, 그리고 商品을 生產하여 市場에 네디 팔기 위해 고용된 資材의 利潤을 각기 그들의 自然率에 따라 支拂하는데 充分한 價格이라고 한다. 여기서 自然率이란 모든 社會에 있어 각 社會與件에 따라 나르기는 하나 항상 存在하는 것으로 勞動이나 資材를 고용함에 있어 支拂해야 하는 賃金이나 利潤의 보통율(ordinary rate)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自然率은 部分的으로는 社會의 一般的 상황, 사회의 부유나 빈곤정도, 그리고 社會가 진보하고 있는가 정체적인가 혹은 퇴보하고 있는가 하는 상내에 따라서 그리고 또 部分的으로는 各 生產에 고용된 要素의 特性한 性質에 의해 自然的으로 規制되는 것이다. 스미스가 말하는 自然率은 實제상 구체적으로 가약될 수는 없는 것으로 通常 어느 社會에서 그렇다고 수능될 수 있는 어떤 程度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그는 이와 같이 市場價格과 自然價格을 區分하면서 自然價格을 앞서의 生產費價格理論에 의한 生產價格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市場價格에 대한 中心價格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의 自然價格은 生產費에 의해決定되는 것으로 보이며 生產費는 投下勞動의 費用에 利潤 및 地代를 합해決定되는 것으로 본다. 投下勞動의 費用은 勞動者가 자신 및 자신의 부양가족의 生計手段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水準으로決定되는 것이고 利潤은 資本家에게 投資유인이 생길 程度의 水準에서 그리고 地代는 그 社會의 일반적 상황 혹은 그土地가 위치하고 있는 주위의 상황 그리고 部分的으로는 土地의 비옥도 등에 의해 矱정하게決定되는 것으로 보았다.

III. 데이비드 리카아도(David Ricardo)의 價值論

리카아도는 스미스가 支配勞動價值說을 說明하다가 投下勞動價值說을 主張하고 다시 諸產業間に 單位 労動當 資本投下比率이 相異한 것이 現實이며 그의 상황에서는 商品의 價値가 投下된 労動量에 比例하지 않는다는 事實을 명확히 認識하고는 投下勞動價值說을 포기하고 價格은 賃金, 地代, 利潤으로 構成되어 있다는 一般生產費說을 主張하는 등 예비한 立場을 취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자신의 投下勞動價值說을 일관성있게 평고 있다. 그는 자기 以前의 經濟學者들이 經濟成長에 큰 관심을 두고所得分配問題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던 立場과는 시작을 달리하여所得分配論을 다루는 기반으로 價值理論에 치중하였던 것 같다. 그가 자신의 저서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에서 解決하여야 할 經濟研究의 中心課題로 認識하고 있던 것은所得分配가 달라짐에 따라 資本蓄積과 經濟成長에 어떠한 影響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리카아도에게 있어서 價值論은 國民經濟內에서 生產된 財貨가 어떻게 얼마단한 價値를 지니며 그것이 經濟機構內에서 各生產 참여자에게 어떻게 分配되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기초로서 추구되었던 것이다. 또한 스미스가 地主와 資本家가 存在하는 經濟상황下에서는 相異한 諸商品의 生

金相溫

產過程이 單位勞動當의 資本投下比率이 各已 相異한 技術狀態와 結合되며 價格은 商品에 對象化된 勞動量에 面對する 수 있는 것을 忽視하고 勞動價值論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為す려 할 때 그에 대한 새로운 說明의 必要性이 러카아도에게 넘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리카아도의 價值論은 스미스가 効用이 交換價值와는 半然하다고 한 事實을 바탕으로서 効用은 商品이 交換價值를 가지기 위한 必要條件이라는 前提의 지적으로 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効用이 價值를 規定하자는 않는다고 한다(Utility then is not the measure of exchangeable value, although it is absolutely essential to it). 그는 効用을 갖고 있는 商品은 첫째는 異소하기 때문에 둘째는 그 商品을 生產하는데 드는 必要勞動量의 크기에 따라 交換價值를 갖게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交換價值를決定하는데 더욱 重要要因은 商品生產에 必要한 投下勞動量이고 異소성은 副次的인 重要性을 갖는다고 한다. 다만 異소성이 더욱 重要한 경우는 쉽게 再生產이 不可能한 商品 즉 미술품, 골동품, 純粹한 酒類 등 그 供給量이 쉽게 늘어난 수 없는 商品들의 경우로 投下勞動量에 의해 그 價值가決定되며 보다는 사람들에 그 商品에 대해 느끼는 欲求의 程度에 따라決定된다는 것이다.⁽³⁾ 이 以外에도 獨占下에서 生產된 商品 그리고 用役에 대해서는 投下勞動量에 따라 價值가決定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價值論의 論議對象에서除外시하고 있다.

리카아도는 이와 같이 價值論의 對象은 人間의 勞動이 投下되면 거의 아무런 制限 없이 供給量이 增加될 수 있는 日常의 大部分의 商品으로 限定하고 있는데 그 理由는 再生產이 이벼운 미술품, 골동품 등의 몇몇 시치품적 性向이 큰 物品들이 經濟內에서去來되는 比重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로 인해 일어나는 價值論의 理由는 무시해도 좋을 것으로 본 것이다. 즉 需要側의 用途에 의해 그 價值가 주로 規定되는 小數의 商品들이 國民經濟內에서 資本蓄積에 있어 갖는 重要性은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되었기에 리카아도는 分配論의 基礎로 추구했던 價值論의 對象에서除外됐던 것이다. 그의 생각에는 一國의 資本의 감소는 반드시 再生產을 감소시키며 따라서 나라의 富가 축소되며 뇌여 빙궁한 상대가 초래될 것이라고 어려웠던 것이다.⁽⁴⁾ 그래서 그는 勞動價值說을 展開하여 資本蓄積에決定的인 영향을 주는 要因으로 勞動의 價值創造에 관해 심도있어 보려 했나. 그는 價值論을 시작함에 있어 商品에 具現된 勞動量의 증가는 그商品의 價值를 增加시키고, 商品에 投下되는 勞動量이 감소하면 그商品의 價值가 감소한다는 理據을 피악하고, 人間의 勞動에 의해 그 供給量이 쉽게 增加할 수 있는 財貨는 例外하고 其他의 모든 商品의 交換價值를決定하는 기초원리로 그商品에 投下된 勞動量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시작한 리카아도의 價值論은 스미스의 價值論을 바탕으로하면서 展開된다. 앞서 서시 지적한 바와 같이 스미스와 리카아도의 經濟的 主關心事는 相異했다. 스미스는 國富를 增大시키는데 主關心을 두고 있으므로 資本蓄積이 무엇보다 重要했다. 資本蓄積의 異常과 그 効果 등을 說明하고 經濟成長을 위한 조건을 살피으며 資本蓄積을 이해하는 要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力點을 두었다. 반면에 리카아도는 資本蓄積이 經濟成長에 미치는 効果 등을 解明하는 데 보다는 成長過程에서 仁들이 전 社會의 爭이가 地主와 資本家 그리고 勞動者 사이에 어떻게 分配되는가 하는데 큰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즉 그는 分配問題를 究明하는 重要的 旁論으로 價值論을 展開했던 것이다. 그는 당시 產業資本家의 立場을 대변하고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資本이 集積됨에 따라 產業이擴張되어 勞動需求가增加하고 그에 따라 賃金이 上昇되고 生計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人口도 increase되며 다시 이에 의해 賽物에 대한 需要도擴大되어 이세까지는耕作되지 않았던 边地까지耕作을 하게 되어耕境이擴大되어 賽物價格이 등극하여 地代는 더욱 커지고 利潤은 전차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허여 社會內의 全般的인 利潤下落은 결국은 세로운 資本의 形成을 막아 經濟全體가 成長을停止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賽物價格가 높이 地代가 많이 支拂되기 때문에 利潤이 감소하여 결국은 경기침체라는 상태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地主가 地代를 가지고 사용 부분을 줄이기 위해 賽物價格를 低價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3) 勞動價值論은 商品生產과 交換의 社會의 侧面을 강조하는 반면, 効用價值說은 交換의 個別의 特殊을 강조하고 商品의 價值가 商品을 所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취향과 經濟의 이후에 의존하는 것으로 피악된다. 따라서 効用價值論이 再生產이 不可能한 商品들까지 說明하는 一般性은 갖고 있으나 論理的인 說得力은 弱하다.

(4) 리카아도는 資本의 감소로 인한 成長停止의 問題를 구 難點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資本의 감소로 인해 1人當 資本裝備率이 낮아지며 따라서 生產率이 낮아져서 國民經濟全體의 供給能力이 민이치는 것은 國民經濟의 极大진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는 당시 穀物의 輸入을 禁止하고 있던 穀物法을 폐지해야 한다고 主張했던 것이다.⁽⁵⁾

그리면 티카이도가 農業部門에서의 利潤下落이 經濟全般의 利潤下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理由는 무엇인가 그것은 農業利潤이 여타 산업의 利潤率을 規制하지 선도하는 基準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전에 스라파(P. Sraffa)에 의하면 티카아도는 農業部門의 投入物(씨앗)과 產出物(곡물)이同一商品으로 이루어지 있기 때문에 農業利潤이 價格變化와 獨立의로決定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고 이에서 農業利潤의 基準의 基本的 위험에 관한理論의基礎가 찾아진다고 말하고 있는데⁽⁶⁾ 이는 티카아도가 價值를 測定하는데 不變의 價值尺度를 찾은事實과 같은 연관이 있다. 사실 티카아도는 穀物만을 고려하는 一商品體系下에서 價格은 도입하지 않고 穀物의 物量만을 가지고 分配되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래서 地代란 全的으로 土地의 비용도와 農作限界에 의해決定되는 것으로 죄업등지의 生產量을 조작하는 物量으로 규정되며, 賃金은 勞動者들의 生存에 必要한 穀物量에 의해規定되고 利潤은 實際純生產量에서 地代를 차감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순수히 穀物量으로 表現된 農業의 平均利潤率은 總生產物에 具現되어 있는 勞動量에서 勞動者들의 生計維持에 必要한 多樣한 商品總量을 生產하는데 드는 勞動量과 地代를 차감하여 구한 총잉여노동을 과물 생산에 使用된 總資本中勞動成分으로 나눠 구할 수 있다. 一商品體系로부터 製造業商品까지 生產하는 多商品體系로 확장하면서 이 利潤率이 바로 社會의 平均利潤率이 되며 이 利潤率을 生產費用에附加하면 소위 自然價格이 된다.⁽⁷⁾ 티카아도는 여기서 자신의 一商品體系로 부터 多商品體系로擴張하려 했을 때 多樣한 諸商品의 價格比率를 설명하기 위해 價值論을必要로 했으며 그래서 자신의 投下勞動價值說을 주장했다. 또한 多樣한 商品이 生產되는 各生產部門이 相異한 資本構成을 갖고 있기 때문에 多樣한 商品들에 交換價值가 각商品에 具現되어 있는 勞動量에 비례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는 價值論을 修正해야만 했다.

그래서 티카아도는 著書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의 Chapter 1 Section IV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principle that the quantity of labour bestowed on the production of commodities regulates their relative value, considerably modified by the employment of machinery and their fixed and durable capital.

즉 商品生產에 投下된 勞動量이 相對價格을 규정한다는 原則은 기계나 여타의 固定 및 耐久性 있는 資本의 使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資本의 耐久性이 다르고 固定資本과 流動資本의 構成比率이 다르고 또한 資本이 回收되는 速度 등이 다른으로 인해 상당히 修正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修正을 통해 스미스가 초기해야만 했던 投下勞動價值說을 일관성 있는 것으로 만들게 되었다. 스미스의 경우에는 資本의 積蓄과 土地의 私有가 이루이지기 以前의 초기 미세한 상황下에서만 投下勞動量이 價值의決定因子라고 할 수 있던 것을 資本의 積蓄과 土地의 私有가 行해진 以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修正을 통해 投下된 勞動量과 商品의 交換價值사이에 比例의 關係가 있음을 보았다.

위의 세 가지 경우는 사실 같은 상황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기계나 도구를 使用하는 것을 과거에 積蓄된 労動을 現在에 있어서 利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耐久性이 큰 기계를 使用하는 경우, 固定資本이 많은 경우, 資本이 回收되는 速度가 빠른 경우 일수록 과거 노동을 더욱 많이 고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⁸⁾ 다시 말해 労動에 대한 과거 노동의 比率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利潤이란 것은 投資된 資本의 크기와 投資期間에 달려 있다고 볼 때 固定資本이 많거나 耐久性이 큰 기계를 사용하거나 資本이 回收되는 速度가 빠를수록 利潤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賃金率이 變化할 때 과거 노동의 比重이 큰 農業의 商品(A)과 그 比重이 작은 產業의 商品(B)과는 相對價格이 變하게 된다. 가령 A商品

(5) 이에 反對하니 見解를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T. R. Malthus였다. 그는 地主의 立場은 대체로 穀物法의 有續은 主張했으나 그의 이니한 主張은 폐소소비설로 나타내어졌다. 폐소소비설이란 경제가 절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需要의 不足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익기 위해서는 地主階급과 같은 계층이 있어 소비조정자行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6) Ronald L. Meek, 김세민 譯, 『농가기록의 역사』, 韓農, 1985, pp. 181~188.

(7) 이에 대해 K. Marx는 Ricardo는 價值와 生產費用同一視하는 오류를 벼하고 있으며 따라서一般的 利潤率이란 것의 有在여부는 증명할 수가 없어 물리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8) Ricardo는 가령 웃김을 生產하는 데 직포공이 배袋子를 利用해서 한데 웃김의 生產에 기여한 것은 직포공과 배노이가 아니라 기세가 아니고 직포공과 배袋子는 웃김의 労動者라고 하여 기계를 과거 노동의 現在化로 解釋하고 있다.

의價格이 B商品의價格의倍라고 하자. 이제 賃金만이 上昇하고 產出量은 증진과 같으며 生產技術도 同等하다고 하자. 그러면 賃金이 上昇한 以後에도 A商品의價格이 B商品의價格이 2倍일 것인가. 아니다. 최소한 A商品과 B商品의價格差는 줄어드는結果가 나타난 것이다. 즉 相對價格이 變化한다는 것이다. 더우기 生產費用中에서 利潤의構成比가 큰商品의 경우에는 價格이 下落하기까지 할 것이다. 이것이 리카아도의 重要的論點이었다. 그는 產出水準과 生產技術水準이 같은 유치될 때 賃金의 上昇은 利潤의 下落을 통해 시반 可能하며 이와 같이 增加하는 理由는 賃金勞動者와 資本家가 社會의 產物을 서로 많이 가져가리고 투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즉 스미스는 労動者의 資本家 사이의 經濟的對立關係를 명확히認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賃金의 上昇이 모든商品의價格을 上昇시킬 것이라는單純한結論을 내리는 잘못을 범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리카아도에 따르면 投下勞動量은 不變인데 賃金率의 變化에 따라商品의相對價格이 영향을 받는다는事實은 資本/勞動比가 社會의 平均인 產業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一般的交換의 單一體으로 不變의 價值尺度가 存在한다면 賃金率이 變化할 때 資本/勞動比가 社會의 平均보다 높은 產業에서 產出된 모든商品들의總交換價值에 미친 效果와 資本/勞動比가 社會의 平均보다 낮은 產業에서 產出된 모든商品들의總交換價值에 미친 效果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作用하여 상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一般的價格尺度가 異다면 諸商品들의交換價值의 變化가 市場內에서 복잡하게 염려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리카아도는 不變의 價值尺度를 찾고자 노력했으며 결국 이를 찾지 못해 投資後收益의回收가 1年인 穀物을 不變의 價值尺度로 가정했다. 그리고 穀物價格이 變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賃金은 變하지 모르나 다른商品의價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論지었다.⁽⁹⁾ 그러니까 리카아도는 賃金의 上昇이 全般的商品價格의 上昇을 초래한다는 스미스의 말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도리어 單位勞動當 資本投下比率이 높은 技術狀態下에서 產出된商品의 수록 賃金上昇에 의해商品價格의 下落이 더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價格을構成하는部分中 賃金部分은 產過程에 投下된 労動量에 比例하여決定되는 반面 利潤은 投下한 總資本量에 비례해서決定되는 資本/勞動의 比率이 다르면 賃金에 대한 利潤의 比率이 달라지는 대 價格의構成部分中 利潤이 賃金部分에 비해 相對적으로 큰 경우의商品價格은 賃金上昇에 따른 利潤의 감소로 利潤감소폭이 더 큰 경우에는 價格이 下落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利潤의 下落은 競爭에 의해各產業에 있어서 利潤率이 均等하게 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리카아도의理論에 있어 問題點은 賃金部分으로 支拂되는費用을 計算하는 경우 다른要素로 說明하지 못하고 이미 存在한나고 여겨지는 價格을 說明되어지지 않고 이내 市場에서 支拂된다고 推定되는價格을 갖고 適用한다는 네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리카아도가 자신의著書「原序」Chapter 1. Section 1의 開頭에서 다음과 같이 스미스를 비판하고 있는 内容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The value of a commodity, or the quality of any other commodity for which it will change, depends on the relative quantity of labour which is necessary for its production, and not on the greater or less compensation which is paid for that labour.

즉 商品들의交換價值는 그것을 產出하는데 必要한 労動의 相對量에 따라決定되는 것인지 生產에 投下된 労動에 대해 지워진 보수가 얼마나에 따라決定되는 것은 아니라고 價值論의 저원에서 말하고는 다시 賃金部分으로 支拂되는部分은 市場에서 支拂되는 労動의價格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디시 번복하고 있는 셈이 되어 모순이라고 할 수 있나(circular reasoning).

여기서 삼시 짚고 넘어가야 할事實은 리카아도는商品의自然價格을 规定하는 生產費用을 分析하면서 단지 利潤과 賃金만을 고려하였다는事實이다. 예나하던 地代를 價格이決定되고 난 後의 잉여부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穀物生產의 경우에는 地代가 支拂되지 않는 級열등지의 경우를 想定했기 때문이다. 아울든 그는 價值理論을 통해 賃金部分과 利潤部分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비가아도의 絶對價值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그는 死亡直前에 絶對價值 및 交換價值에 관한 굳

(9) Ricardo가 不變의 價值尺度라는 개념을 必要로 했던 것은 賃金의 變化에 따른商品價格에의 영향을 시상하고 投下勞動量에 대한 差異만이 드러나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Sraffa는 賃金率의 上昇 또는 下落이 社會의 產物의 크기에 변화를 초래한다면 產物이 利潤에 미치는 效果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을 썼다. 그의 價值論이 諸商品間의 交換價值의 相對的 變化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주기의 사실이지만 그는 그의 變化는 各商品에 內在되어 있는 實質價值가 變化해서 可能한 것이라고 推論하고 이와 같이 交換價值의 相對的 變化的 기초로 주정되는 實質價值得 絶對價值라고 불렀다. 絶對價值은 積極價值(positive value)라고도 하며 投下勞動量이 이 積極價值의 規制者이며 交換價值의 變化는 積極價值에 따르므로 결국 交換價值도 投下勞動量의 變化에 의해 規定된다는 것이다. 다만 交換價值는 比較가 되는 商品의 投下勞動量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末年에는 한商品의 實質價值가 어떻게 變化해 나가는가에 더욱 주 관심을 쏟고 있으며 實質價值가 變化하지 않는 한 交換價值은 變할 수 없다는信念을 갖고 있었다. 또한 그는 멜니스(T. R. Malthus)의 亂信交換⁽¹⁰⁾ 속에서도 大量의 穀物이 적은 노동으로 生產될 때 穀物의 價值은 낮아지며 投下된 労動量에 비해 穀物수확량이 적은 경우 價值은 上昇한다고 믿하고 있다. 즉 그는 商品의 生產에 많은 労動이 投下되었을수록 그商品의 價值가 높이고 積極히 말하고 있다.

II.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價值論

리카아도 以後 労動價值論을を中心으로 社會를 보는 시각은 労動價值論의 立場에 서서 社會제증간의 관계를 간등화시켜 보는 見解와 그에 反對하는 立場에 서서 社會제증간의 관계를 調和스러운 關係로 보는 見解로 나뉘어 展開된다. 먼저 労動價值論의 立場에 서는 見解로는 労動組合運動家, 社會主義者, Marx主義者 등이 있다. 労動組合運動을 推進하던 사람들에게는 리카아도의 労動價值論은 資本家계급에 대항하여 두쟁하는데 매우 좋은 印論의 기반이 되어 주었다. 또 윌리엄 톰슨(William Thompson), 존 그레이(John Gray), 존 프란시스 브레이(John Francis Bray), 토마스 호지스킨(Thomas Hodgskin) 등의 Ricardian Socialists들은 労動이 投下된에 比例하여 價值가決定된다는 리카아도의 생각을 더욱 進展시켜 労動만이 價值創造의 이므로 모든 社會的 生產物은 労動者가 全部 다 가져가야 한다는 労動全收益權으로 條換하였다. 現實社會에 있어 労動者에게 주어지는 고수가 그들이 實際生產해 낸 것보다 적은내 그理由는 社會內의 부당한 分配構造에 모이려는 것이다. 이들은 労動에 의해서 막이 富 혹은 價值가生產될 수 있으며 資本家나 地主等의 收入은 순신히 労動者에 의해 生產된 것이고 노동계급에게 돌아가야 바탕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張혔다. 기존의 法律制度, 相續制度, 私有財產制度가 그 官憲의 主要要因으로 보고 신랄히 비판하였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労動價值論을 以우 進展시켜 生產活動의 結果 나타나는 잉여가치에 대해 分析했다. 그는 價值論을 資本主義經濟下에서의 資本蓄積의 과정을 해명하는데 色彩를 맞추어 展開하고 있으며 資本蓄積의 動因은 労動에 의한 잉여가치라고 말한다.

다음으로 리카아도의 労動價值論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見解로는 먼저 交換價值라는 개념은 그 自體가 相對的인 것이라고 리카아도가 交換價值을 통해 絶對價值을 찾으려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견해, 그리고 멜디스의 수증지등에 의한 저지으로는 價值은 市場에서 現實的으로 나타나는 需要供給에 의해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見解, 18세기로 價值는 商品自體에 內在하는 고유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關係속에서 効用이라는 형태로 表出된다는 幼川論者の 見解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리카아도의 價值論에 대해 賛反의 토론이 活潑한 가운데 마르크스는 자신의 労動價值論을 펼쳐 오늘날 社會主義國家의 이론적 기반을 提供하게 된다. 그는 價值論을 商品의 分析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는 商品을 富의 가장一般的인 形태로 보고 있으며 資本主義經濟下에서의 商品生產이라는 것을 歷史的으로 특징한 生產樣式으로 強調한다. 과거의 自給自足의 經濟 아래에서는 사람들은 各者의 必要에 의해 生產을 했으며 生產된 大部分의 物品을自身이 消費했었다. 그런데 社會의 生產ability이 증대되어 잉여의 財가 많이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自身이 갖고 있지 않는 물건과 交換하려는 욕구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市場이 점차擴大形成되면서 交換行為는 더욱 빈번한 일이 되어갔고 처음에는 交換比率이 우연적으로 그되고 一回

(10) Ricardo가 Malthus와 같은 편지를 놓해 서로의 理論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事實이다. 그리고 그의 書信들은 Pierro Srafia에 의해 全 10卷으로 出刊된 Ricardo全集에 잘 수록되어 있다. 이를 검토해 보면 Malthus는支配勞動價值說을 주張한 것으로 보인다.

的으로 성립되던 것이 나중에는 비교적 安定的이고 一定한 比率로 決定이 되어갔던 것이다. 그리고 交換行為는 초기에는 임여의 財貨가 있기에 다른 物品과 交換하는 程度이던 것이 그回數가 점점 増加하여지면서 나중에는 交換自體를 目的으로 하여 生產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商品生產이라고 한다. 生產의 모습이 이렇게 由자 社會의 分業이 一般化하면서 더욱 機能化하게 된다. 社會의 分業은 사람들의先天的資質의 差異나 後天的으로 發生된 能力의 差異에 의해 나타나거나 強化되는 것이며 社會의 分業의 進展程度는 그 社會內의構成員들 간의相互依存性의 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나서 말하면 사람들은 分業을 통한 生產方式이 넓리 퍼지고 그에 따라 生產성이 向上되어 社會的으로 임여의 財가 많이 생산되면 交換의必要性이 증대되어 交換이 점점 增加해지고 그에 따라 더욱 分業이 가속화 되고 이는 다시 生產增大를 통해 交換의 범위를 더욱 넓여준다. 이와같은 상황이 社會全般的으로 범위를 넓혀一般的으로 行해될 때 生產活動은 과거 自給自足的經濟下에서는 使用價值를 目的으로 行해지던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 과거의 生產活動은 生產者 자신의 必要에 의해 주로 行해졌다 만큼 그 生產品의 使用價值 즉 有用性에 目的은 두었던 반면 이제 商品生產下에서는 生產活動을 하더라도 그 生產品이 누구에 의해서 쓰이며 어떤 効用을 발휘하게 되지에는 관심을 별로 둘 필요가 없이켰으며 반면에 그 生產物이 市場에서 어떠한 評價를 받아 交換價值가 얼마나 될까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된 것이다. 이의간이 하여 成立된 資本主義의 生產의 결과인 商品을 分析하는 것은 資本主義下의 生產構造 및 分配構造를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社會안에서의 人間關係가 經濟構造속에서 어떻게 形成되어 있는가 하는것 까지를 살피는 것이 된다고 마르크스는 생각하고 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商品은 人間의 欲望을 充足시켜 줄 수 있는 有用性을 갖고 있는 物質이라는 것이다. 즉 商品은 使用價值를 갖고 있으며 有用性에 의해 商品은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또한 使用價值를 갖고 있는 商品은 다른 使用價值를 갖고 있는 商品과 交換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有用性을 갖고 있는 商品는 끼니 交換될 수 있다는 것은 각 商品이 갖고 있는 具體的屬性인 有用性이 共通的인 것임이 폐를은 아니라는 것이다. 분명 有用性은 서로 나르너라도 商品들 사이에 共通的인 그 특성이 있기에 同等하게 交換된다고 보았다. 바로 이 공통적인 것을 찾는데 있어 마르크스는 商品에서 有用性을 除外시키고 나면 남는 것이 단순한 人間勞動의 응집 뿐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後に 브바베르크(Böhm-Bawerk)에 의해 비판받는 계기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人間勞動은 商品을 어떤 特定用途가 있게끔 해 주는 区別할 수 있는 有用勞動이 아니고 区別할 수 없는 추상적인 單純人間勞動이라는 것이다. 추상적 人間勞動은 有用勞動과는 区別되는 것으로 有形勞動과 함께 勞動의兩側面을 구성하는 것이다. 즉 商品이 特定한 有用性을 가진 使用價值가 있게끔 하는 것은 有形勞動으로 --이는 特定한 目的下에 修行되는 특징한 종류의 生產活動으로 정의되는데 -- 목수의 노동과 농업은 사람의 노동이 다른 것처럼 각 勞動者의 勞動이 특별히 区別되는 有用性을 칭출해 내는 것이고, 商品에서 使用價值를 摘像시키면 남는다고 推定되는 價值⁽¹¹⁾를 形成하는 것은 모든 人間勞動의 同質의이며 추상적인 면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에 의하면 商品이 使用價值라는 面과 交換價值라는 面을 갖는 것처럼 人間勞動도 그에 대응하는 有用의인 즉 仁義과 推象의인 誤民을 갖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人間勞動의 推象의인 측면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면 사람은 누구나 일상 일상에서 고통스러운 것임에, 이와같은 노리과 고통은 사람이 어떤 종류의 作業을 하든 기 위해 共通의인 것으로 파악되며同一할 것이라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작업장에 나나나는 모든 差異를 摘像해 버리고 人間의 力과 力동에 의한 生產的活動만을 지칭하는 推象勞動이라는 개념은 가장 近代的인 社會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그리고 가장 近代的인 社會의 個人들이 하나의 勞動에서 다른 勞動으로 자유롭게 移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떠한 勞動을 맡게 되는가가 그리重要하지 않는 社會라고 定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個人的 勞動이 一般的인 勞動이라는 추상적인 형세를 取한다--는 事實에 의해 勞動이 社會의 性格을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¹²⁾ 分業에 의해 交換이 擴大되고 財貨의 生產이 商品의 個別의 有用性 보다는 交換 속에서의 價值에 중점을 두고 行해지는 것을 계기로 하

(11) 마르크스에 의하면 價值라는 것은 交換價值로부터 추출해 낸 일종의 論理的 종류를 혹은 交換價值에서 나타난 共通의 優先라고 할 수 있다. 더 자세히 보면 交換價值라는 것은 商品들의 價值가 거기에서 나온다--그것으로 표현되는 유일한 形態라는 것이다.

(12) Ronald L. Meek, 김재민譯, 勞動價值論의 歷史 p. 246.

이 人間勞動은 그 一重的인 性格을 갖게 되며 모든 종류의 有形勞動이 同等하나고 推定되는 推象勞動이라는 개념에 의해 단순한 人間勞動의 支出로 환원될 때 商品生產은 社會的 生產關係를 투영이 부각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商品의 價值를 갖는 것은 推象的 人間勞動이 그 속에 具現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事實을 신기 보았다.

마음으로 마르크스가 생각한 점은 商品의 價值 크기는 어떻게決定될까 하는 것이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해 서비스나 리카아도의 견해를 따라商品을 生產하는데 所要된 労動量에 따라 價值가決定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만 所要된 労動量은 추정하는 단위로는 平均的인 社會的 必要勞動時間(socially necessary labor)이라고 한다. 그러나 商品의 價值가 단지 労動時間에 의해 측정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 비죽린이거나 労動을 멀 접 악적으로 投下하는 労動者の 경우同一한 商品을 生產할 경우에도 더 많은 労動時間이 所要된 터 인데, 그녀한 경우 投下勞動時間이 많아 더 높은 價值를 갖는다고 말한다면 不合理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 마르크스는 労動이 價值를 칭조한다고 할 때 그 노동이 人間의 同質的인 労動임은 물론이고 그 強度에 있어 社會의 統一性인 生產條件와 平均的인 죽련도를 想定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생기 속에서 죽련노동이 비죽련노동으로 환원되는 것에 대해서도 리카아도에 비해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단순한 平均的인 労動은 時代와 社會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特定時點·特定社會에서는 一定하게 드러날 수 있어 복잡·죽련노동은 몇 배수의 단순·비죽련노동으로置換이 可能하다는 것이고 그려 한 事實이 있음을 現實의 경험에 의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죽련노동과 비죽련노동 사이의 還元比率은 과거부터 우리들이 그 문제를 특별히 意識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社會의 으로 잘 決定되어 나왔다는 것이다. 이것을 리카아도의 경우에는 市場에서 支拂되는 賃金을 使用함으로 인해 간명되어져야 한 價格을 利用하는 순환논리에 빠지는 문제가 있었던 것에 비해, 마르크스는 生產者들의 배후에서 進行되는 社會的 過程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 이 社會的 過程이 바로 개개인의 有用的 労動이 一般的이고 推象的인 人間勞動으로 還元되어지는 것이고 分業이 一般化되어 있는 近代社會의 屬性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죽련노동의 價值가 높은 理由는 단순노동력에 비해 죽련노동을 形成하는데 많은 노동이 必要하기 때문이며 죽련노동력은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또한 높은 價值를 갖는 商品을 生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죽련노동의 形成에는 많은 費用이 들어 그 費用이 바로 生產價值를 구성하는 한 部分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또한 교묘하게 리카아도의 오류로 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마음 마르크스가 商品의 使用價值가 交換價值의前提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면, 그는 리카아도의 경우처럼 商品의 有用性이 個別商品이 需要되어 交換價值를 드러내는데 있어 必要하고 하는 個別的 需要의 측면이라는 主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使用價值는 각각의 個別商品의 需要側面은 물론이고 商品全體의 需要側面에 있어서도 交換價值의前提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어떤 商品이 그 價值내고 필리기 위해서는 그 商品을 生產하는 產業에 分配된 總勞動量이 그商品에 대한 總需要를 充足시키는데 充분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다시 말해서 그는 勞動價值論이 需要側面을 고려하는 것은 純粹으로 理解되는 것은 事實이지 需要가 아니라고 말한다. 결국 마르크스도 서비스나 리카아도와 마찬가지로 需要가 供給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시장태를 실명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商品의 價值가 社會의 으로 必要한 労動時間에 의해決定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交換이 行해진다는 價值法則에 의해 價格의 움직임이支配된다라고 한다. 이와 같은 價值法則의 價格支配현상은 價值의 生產價格으로의 轉形이 發生하지 않은 社會에서 이거나 그 轉形이 發生한 社會에서 이거나를 막론하고 나니나라는 것이다. 그리고 商品의 價值는 過去勞動(dead labor)과 現在勞動(living labor)으로構成되어 現在勞動은 다시 必要勞動과 翁여노동으로 区分된다. 過去勞動은 不變資本(c)의 價值를 나타내며 現在勞動은 可變資本(v)의 價值를 나타낸다. 그리고 生產手段을 購入하는데 投下되는 不變資本은 生產過程에서 使用되는 分만큼 價值를 移轉시킬 뿐 잉이 가치를 創出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労動을 고용하는데 投

下되는 可變資本은 生產過程에서 그 價值가 變하여 잉여가치를 創出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生產物의 價值 $w=c+v+s$ 가 되어 잉여가치율은 $\frac{s}{v}$ 가 된다. 또 可變資本에 대한 不變資本의 比例 資本의 有機的 構成度 ($\frac{c}{v}$)는 各 生產部門마다 어려가기 技術上의 理由로 다르다. 利潤率은

$$r = \frac{s}{c+v} = \frac{\frac{s}{v}}{\frac{c}{v} + 1}$$

로 나타내 지기 예문에 잉여가치율이 同一하더라도 資本의 有機的 構成度가 다르기 때문에 각 生產部門마다 相異한 利潤率이 나타난다. 이것이 商品이 그들의 價值대로 交換되는 初期經濟상황인 것이다. 資本主義가 漸進前進하고 資本의 移動이 매우 원활해 지역競爭에 의해 各 生產部門間의 利潤率은 均等化되어 商品의 價值은 價值로부터 빠져나와 잉여가치는 이율으로 轉形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有名한 商品價格의 生產價格으로의 轉形問題(transformation problem)가 提起된다. 이 문제에 있어 마르크스는 產出의 諸要素의 價值뿐 아니라 投入 諸要素의 價值까지도 함께 價格으로 轉形되어야 한다는 事實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適切한 解를 찾지 못했으나 보르트키비쓰(Bortkiewicz)와 윈터니쓰(Winternitz)는 多樣한 生產部門들 간의 諸關係와 轉形의 結果로서 充足되어야 할 多樣한 諸條件이 數學的 意味에 있어서의 既知의 方程式群으로 주 方程式의 數가 未知數의 數와 同一한 方程式群으로 表現될 수 있다(⁽¹³⁾)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解決했다.

다시 生產價格에 대해 살펴보면 生產價格은 費用價格 + 平均利潤으로 構成되는데 費用價格은 可變資本 + 消費된 不變資本이며 이는 商品에 具現된 支拂勞動의 量을 나타낸다. 그리고 商品의 價值는 費用價格 + 잉여가치가 된다. 이제 資本規模는 같으며 資本構成面에 있어서는 相異한 경우를 들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4)

資本	消費된 不變資本	費用價格	잉여가치	價值	利潤	生產價格	價格과 價值의 差
I. 80C+20V	50	70	20	90	22	92	+2
II. 70C+30V	51	81	30	111	22	103	-8
III. 60C+40V	51	91	40	131	22	113	-18
IV. 85C+15V	40	55	15	70	22	77	+7
V. 95C+5V	10	15	5	20	22	37	+17
總合			110	422	110	422	

價值法則에 의해 決定된 平均利潤率을 中心으로 個別商品의 利潤이 決定되고 그에 따라 個別商品의 生產價格이 決定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亂表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價值의 總合은 生產價格의 總合과 合세 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說明해 보면 商品生產初期에는 價格은 대체로 價值에 따라 決定되었고 따라서 利潤率은 產業間에 있어 그 差異가 커졌다. 그러나 차츰 資本主義가 成熟하고 競爭이 치열해짐에 따라 利潤率의 差異는 좁혀져 하나의 一般利潤率로 均等화되었고 이에 따라 均衡生產價格은 價值에서 빠져나와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生產價格은 모든 產業間의 利潤率이 競爭에 의해 均等하게 된 다음에 이어서는 均衡價格인 것이다. 또 資本의 有機的 構成度가 社會的 平均보다 高으면 生產價格이 價值보다 高고 그 過度成立하는 것으로 가의된다.

이제 마르크스는 각 다른 技術의 生產過程을 통해 生產된 商品들이 그들의 價值以上이나 以下로 交換되며 각 產業全體를 통하고 보면 商品들의 生產價格의 總額과 商品들의 價值의 總額은 一致하게 된다고主張한다. 또한 必要勞動時間의 變動이 生產價格을 變化시키므로 價值法則이 價格變化를支配하는 것으로 그

(13) Ronald L. Meek, 金相溫譯, 노동가치론의 역사, 플랫, 1985, p. 279.

(14) Ibid., p. 274에서 引用.

되니라는 것이다. 이에 競爭이 產業間의 利潤率을 均等하게 해주므로 利潤은 各 生產部門에서 同一하게 되고 生產價格은 費用價格+利潤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價值法則은 全社會에서 生產되는 모든 商品의 總價値를 決定하며 總價値에 의해지는 총잉여가치가 총잉여가치에 의해서는 平均利潤率이 決定되어 그리고 이 平均利潤率을 中心으로 個別商品의 利潤이 決定되고 따라서 個別商品의 生產價格이 決定되는 것이다. 그리고 價値의 總額은 生產價格總額과 같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價値法則은 이와 같이 交換關係를 규제할 뿐 아니고 더 나아가 社會에 存在하는 全體勞動力을 各 生產部門에 얼마나 配分할 것인가까지 조정해 生產關係도 규정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商品生產을 하는 단계를 署가식 단계인 單純商品生產단계와 後期的 단계인 資本制商品生產 단계로 区分하고 있다. 商品生產의 초기단계에서는 價格은 대체로 價値에 따라 決定되었고 利潤率은 產業間에 相異했다. 이 경우도 資本家들은 勞動者の 賃金水準을 最低生計費水準으로 끌어내리고 잉여노동에 의한 잉여가치를 專有한다. 競爭은 同一產業內에서만 有効하여 같은 產業內의 商品價格이 같은 利潤率을 각용한다. 그러나가 더욱 資本主義가 進前하여 資本制商品生產단계가 되면 產業間의 競爭이 치열해지고 利潤率의 차이는 풀려져 하나의 平均利潤率이 均等화되고 商品價格은 商品價格에 比例하는 것이 아니고 生產價格에 비례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生產價格은 모든 產業間의 利潤率이 競爭에 의해 같은 利潤率이 되는 다음에 일어지는 均衡價格인 것이고 資本의 有機的 構成度가 그의 社會的 平均値보다 높으면 生產價格이 價値보다 높고, 資本의 有機的 構成度가 社會的 平均値보다 낮으면 生產價格은 價値보다 낮다. 또한 產業間 資本의 有機的 構成度의 差異는 商品生產의 초기단계에서는 產業間 利潤率의 差異로 드러나지만 후기단계에서는 商品의 交換比率이 對象化된 勞動比率로부터 과거하는 現象으로 드러난다.

또한 產業間의 相異한 利潤率이 均等화되는 過程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產業에서 資本의 有機的 構成度가 그 社會에서의 各資本의 有機的 構成度의 平均의 價値보다 높을 경우 利潤은 잉여가치보다 크게 된다. 이는 즉 價値보다 價格이 높게 形成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 競爭은 價格變化를 통해서 잉여가치를 再分配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마르크스에 의하면 利潤率은 流通領域에서는 諸產業間에 相異하나 生產領域에서는 諸產業間에 均等한 것이기 때문에 社會的 平均보다 낮은 資本의 有機的 構成度를 갖는 產業으로부터 社會的 平均보다 높은 資本의 有機的 構成度를 갖는 產業으로 잉여가치는 移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의 平均보다 높은 資本의 有機的 構成으로 生產된 諸商品의 生產價格은 下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競爭은 相異한 利潤率을 均等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잉여가치는 社會的 總生產物에서 賃金總額을 공제하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總生產率이 총잉여가치를 決定하는 것은 아니다. 즉 勞動力의 價値인 賃金總額이 어떻게 決定되느냐에도 달리 있는 것이다. 그런데 勞動力의 價値는 勞動者の 生存에 必要한 生計手段의 價値로 나타낼 수 있으며, 勞動者が 必要로 하는 生計手段은 그것을 生產하는에 必要한 勞動時間의 價値와 다른 生產價格으로 얼마든지 訂立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賃金은 必要한 生計手段에 體化된 勞動量과 一致되어야 하는 比率과는 다르게 形成될 수 있는 것이다. 勞動者自身의 勞動력의 價値와 그들이 生產해 내 生產品의 價値의 差異가 바로 잉여가치를 構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총잉여가치에 의해서 平均利潤率이 규정된다고 본다. 물론 平均利潤率은 總資本量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價格을 決定하는 것은 勞動量과 賃金率에 의해 정해지는 總賃金支拂額과 平均利潤率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는 利潤이 바로 잉여가치로 부터 轉形된 것이다. 이는 價値가 生產價格으로 轉形되는 것과 함께 일어나고 했다. 商品生產下의 商品의 價格은 競爭의 여원에 의해 겹친 生產價格에 인치해 가며 뛰면 그商品에 具現되어 있는 勞動量으로부터는 점점 乖離해 나간다. 이와같은 현상으로 인해 資本主義下에서 勞動에 의한 生產物들의 많은 部분이 利潤의 形태로 資本蓄積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르크스가 資本主義의 商品生產과 관련되어 생가한 勞動者の 心理狀態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資本主義下의 生產樣式을 파거의 生產樣式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보았다. 資本主義下에서는 크게 두개의 階層이 存在하게 되는데 하나는 生產수단을 所有한 資本家階層이고 나른 하니는 자신의 生存維持를 위해서는 勞動 이외에는 다른 어떤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한 노동자 계층이다. 노동자 계층은 資本家

에게 고용되어 자신의 労動力を 뱃가를 빌고 生產에 投入한다. 이때 労動者는 대개 완제품을 4. 產해 대는 것이 아니고 生產過程中 극히一部分에 참여하여 일련의 生產 工程中 영부의 作業 단을 맡는다. 따라서 과거의 労動者와는 달리 自身이 어떤 商品을 완전히 다 만들었다고 생각을 갖기가 힘들게 된다. 또한 勞動에 대한 댓가로 賃金의 形態로 支拂되기 때문에 자신이 참여해 만든商品이 자신의 키족이 아니고 資本家의 手中에 놓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労動者들이 生產過程中에서 自身의 労動과 自身의 生產品으로부터 빈족감을 인식 못하는 것을 薙外(Alienation)라고 했다. 즉 이와같이 生產過程에서 發生하는 薨外는 労動者自身이 資本家에게 위치한支配 당해서 自己自身이 自身에게 屬한다는 感受자 잊는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일단 發生한 薨外感은 時間이 길어 따라 더욱 격화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資本蓄積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資本이 蓄積됨에 따라 공장 규모나 기계·설비 등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자본장비들도 労動者에 의해 사용된 것이라도 것이다. 그런데 労動의 需要는 그려한 자본장비의 使用可能性에 依存하게 된다. 또한 이미 고용되어 있는 労動者들도 높은 시:產性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자본장비에 依存하게 된다. 따라서 労動者들은 自身이 만든 자본장비에 점점 예속되게 되며 이러한 자본장비들이 결국은 資本家들이 労動者들을 統制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労動者의 薨外現象은 더욱 強化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와같은 薨外에 의해 發生하는 프롤레타리아革命과 資本主義의 구조적 비신속성에 의해 發生하는 統制 不可能한 경기변동에 의해 資本主義는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V. 評 價

우리는 앞에서 아인 스미스 以來의 労動價值論의 展開에 대해 살펴 보았다. 각學者의 見解를 바탕으로 評價해 보고 労動價值論이 現代 資本主義經濟에 줄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먼저 스미스는 價值論을 費用理論의 側面에서 살피고 있다고 보아지는 데 이는 價值論의 展開에 있어 그以前에 市場을 최선의 판단자로 보는 見解나 스미스 以後에 展開된 効用論者的 見解 즉 이는 需要側面을 重視하는 見解인데 이와 같은 것들과는 區別되는 것이다. 그는 價值의 真實한 尺度로 労動을 選擇하는 獨創性을 보였다. 어떤 財貨가 값어치를 가지는 理由도 労動이고 얼마나 값어치를 갖는가 하는 것도 生產에 使用된 労動의 質과 量에 따라 決定된다고 했다.

스미스가 財貨의 真實한 價值과 價格에 關心을 기울인 것은 中世時代의 哲者 도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가 말한 正當價格(Just Price)이란 概念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正當價格이란 商品의 價值의 同一한 價格이라는 것이다. 그는 商品의 價值가 무엇에 의해 规定되는지 열마로 정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여유는 없이 다만 商品價値보다 비싸게 판거나 싸게 파는 것은 優理의 으로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正當價格이라는 概念은 經濟的 財貨의 價格分析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된 수 있는 개념이 아닌가 한다. 즉 經濟的 行為를 함에 있어 그 行為가 社會的으로 운동하나고 認識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行為의 目的物들이 얼마나 真實한 價值에 입각하여 行為가 되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아퀴나스의 생각도 行為를 통해서 善者 모두가 慈擇을 입어야지 어느 한쪽이 不當하게 손해를 보고 다른 한쪽이 利益을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正當價格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스미스는 財貨의 價格은 그 財貨가 生產되는 데 들어간 費用에 의해決定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 投入費用은 必要勞動量으로 측정된다고 했다. 또한 市場에서決定되는 財貨의 價格은 그것이 支配할 수 있는 労動의 量으로 評價된다고 했다. 그런데 초기 미개의 사회상태에서는 必要勞動量과 支配勞動量이 일치해 아퀴나스의 just price가 形成되었으나 資本의 蓄積이 이루어지고 分業이 넓혀 行해지는近代社會에서는 支配勞動量이 必要勞動量을 초과하는 경우가一般的으로 되고 그 差가 資本蓄積의 動因이 된다고 피약했다. 그러니까 社會의 分業의 領域이 크게 넓어지고, 經濟的 行為가 매우 変便하게 이루어지며 商品生產을 위주로 하는近代社會를 대상으로 研究한 스미스도 財貨의 真實價値는 市場事情이나 個別 行為의 欲求程度에 의해서 고다는 그 財貨가 生產되는 데 必要한 費用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바탕적이다

고 본 것이다.⁽¹⁵⁾

스미스는 資本의 蓄積이 있는 以後의 近代社會에서의 價值의 決定者로서 投下勞動量을 韻할 것인지 혹은 支配勞動量을 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不明確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投下勞動量은 不變인 데 賃金率이 全產業에서 同一하게 變動한 경우 相異한 資本構成을 갖고 있는 產業들 가운데서 生產된 財貨들의 相對價格이 서로 다른 程度로 變化한다는 事實에 面하고는 労動價值論의 立場에서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곧상 財貨의 價格은 土地의 地代, 勞賃의 賃金 그리고 그 商品을 生產하여 市場에 팔기 위해 고용된 資材의 利潤을 각각 그들의 自然率에 따라 支拂하는데 充分한 價格이라고 一般生產費說을 펴고 있다. 그러면 스미스는 労動價值說을 主張하지 않은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分業이近代的 社會形成에 미친重要性을 잘 認識하고 그에 따라 生產領域에서의 人們之間의 關係가 交換領域에서의 社會的 關係를 규정짓는다는 事實을 잘 드러내 보였으며 労動이 價值尺度의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했으며, 축련노동의 미숙련노동으로의 轉換문제를 다루고 있다. 반면 不變의 價值尺度의 必要性을 認識은 했으나 찾지는 못했고 財貨의 價值가 投下勞動量에 의해 決定된다는 事實을 정교화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때 스미스는 労動價值說의 최초의 提示者이며 그 後의 展開方向에 대한 規制者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음으로 리카아도는 商品의 生產費 혹은 自然價格을 어떤 商品이 갖고 있는 價值를 貨幣形態로 表現한 것으로 理解하고 市場에서 두 商品이 交換되는 相對價格의 變化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正常의 市場狀況下에서 交換되는 比率은 各商品들이 市場에 나오기까지 投下된 勞動量에 比例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原則은 기계나 기타의 固定 및 耐久性 있는 資本의 使用에 의해서 資本의 耐久性이 다르고, 固定資本과 流動資本의 構成比率이 다르고, 또한 資本의 回收되는 速度 등이 다를므로 修正을 해야 하는데, 耐久性이 높고, 固定資本이 많고, 資本이 回收되는 速度가 빠를수록 現在勞動에 대한 過去勞動의 比率이 높은 것으로 이해하면 解決이 되는 것을 보였다. 그는 相異한 資本構成으로 이루어진 多樣한 技術狀態로 生產이 되면 市場에서 競爭的 價格은 投下된 労動의 量에 比例할 수 없다는 것을 피악하고는 이는 競爭이 모든 產業의 利潤率을 均等化시키는 경향이 있고 資本家들은 그들이 投資한 總資本의 量에 比例해서 利潤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價格을 構成하는 部分中 賃金과 利潤部分은 서로 상충관계 (trade-off)에 있음을 強調해서 보여주고 있다.

勞動價值論은 스미스에 의해 提起되었으나 그의 說明은 適用可能性에 있어 限界에 부딪쳤고 리카아도에 의해서는 限界가 극복되고 한층 확장되었다. 이는 스미스는 價格과는 無關한 利潤決定原理에 대해 說明하지 못했으나 리카아도는 各產業마다 資本構成이 다른다는 実質에 의해서 投下勞動價值說을 修正하고 계속 순수한 의미의 労動價值說을 存續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리카아도의 労動價值說의 問題點으로 指摘될 수 있는 것은 그가 商品의 價格을 說明하는데 使用하고 있는 價格들 역시 說明되어져야 한 價格이라는 것에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그가 처음부터 生產費用을 價值와 同一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에 지적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하면 賃金 利潤 그리고 平均利潤率까지도 미리 前提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그의 理論의 약점이다.

이 모든 리카아도는 労動價值說의 展開에 있어 스미스의 限界를 극복했으며 초기이기의 當내에는 물론近代社會에 있어서도 價值의 決定原理로 投下勞動價值說을 확립시켰으며 이러한 그의 學說은 마르크스에게 至大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마르크스가 労動價值論을 研究하던 염두에 두었던 것은 市場에서 드러나는 價格의 決定原理로서의 價值論이 아니고 資本主義社會下에서의 資本蓄積이 어떻게 可能한가 하는 것을 解明하는 것이었다. 그는 資本의 蓄積은 生產過程에서 잉여가치가 積 출됨으로써 可能한데 可變資本에 의해서만 잉여가치가 生成되어 不變資本은 아무런 잉여가치도 만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즉 労動만이 새로운 價值를 창출하여 生產手段을 고용하는데 投下된 資本部分은 生產과정에서 價值를 증가시킬 수 있고 그대로 移轉시키기만 한다는 것이다. 商品의 價值構成部分中, c와 v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혀 그 성격이 다른 것인데 資本主義下

(15) 亂과 混雜인 市場事情下이거나 去來者들이 긴급한 必要에 遭해 있을 경우 능의 去來는 不公正한 價格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에서는 労動者의 労動에 대한 빅가가 貸企의 形態로 支拂되기 때문에 生産手段을 구입하는데 投下한 c와 賃金支拂을 위하 v가 質的으로 差異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費用價格이라는 同一한 형태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되면 不變資本과 可變資本은 別이 드러나 지지 않고 임여가치는 c와 v 모두에 의해 生成되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可變資本만이 임여가치의 生成者라는 사실이 증거되고 c+v+m은 費用價格+利潤으로 轉形된다는 것이다.

第Ⅳ章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競爭에 의해 一般利潤率이 成立되고 그에 따라 商品의 價格은 價値로 부터 脫離되고 임여가치가 利潤으로 轉形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資本主義下에서 一般利潤率이 成立하지 않고 價値가 生產價格으로 轉形되지 않는다면 마르크스의 說明은 틀리게 된다.

필자에게서는 「Karl Marx and the Close of his System」이라는 글에서 그觀的 價値論의 立場에 서서 마르크스의 勞動價值論을 선별해 비판하고 있다. 그는 마르크스의 主張을 크게 4가지로 나누고 그에 대해 하나하나 反論을 떠고 있는데 이를 다시 크게 2가지로 区分하여 살펴 보면 하나는 商品은 分析함에 있어 商品에서 作用性이라는 性質을 捨象하면 단순한 人間勞動의 응집물만이 남는다는 마르크스의 見解는 너무 단순하여 錯誤적이라는 것이고 또 나쁜 하나는 資本主義社會에서 不等利潤率이 競爭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理由는 生產者들은 자신의 労動에 대한 보상용 연계 받든지 무관심하지 않고, 쉽게 경영에 참가할 수 없는 部門의 供給은 制限된 것이기 때문에 그 部門의 生產品의 價格은 그렇지 않은 部門과 비교해 높을 것이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들고 있는 원시적인 상황에서 조차 價値法則이 價格의 運動을支配하는 끊임없는 것이다. 이밖에 마르크스 理論의 결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交換價值의 本質을 찾기 위해 그 對象을 축소하여 自然財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아마 交換이 되는 自然財에 대해서도 고려했다면 労動이 共通要素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賃金率의 變化에 의한 價格의 變化에 대해서도 언급치 않고 있는 경도 지적될 수 있겠나.

이제 마지막으로 労動價值說이 現代資本主義 經濟에 줄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觀點에서 생각해 보자. 아담 스미스보다 앞서는 사람들로 價値의 원천은 労動이라고 생각한 이들은 有名한 哲學者 존 록(John Locke)과 데이비드 험(David Hume)이다. 록은 그의 著書 「Of Civil Government」의 財產에 관한 章에서 土地 및 人間을 除外한 모든 創造物이 人間의 共同所有物이라 해도 각자는 자신의 人間身體의 財產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他人이 침해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特權이며 자신의 신체의 노동과 손의 일은 당연히 자신의 것이므로 自然에 자신의 노동을 加한 結合物은 자신의 것이다라고 한다. 이의 길이 私有財產의 기원을 설명하고 財產은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 所有權을 확인하기 위해 労動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며 財產의 相繼은 正當하다고 했다. 이를테면 現在勞動이거나 過去勞動이거나를 막론하고 労動이 經濟의 生產物의 主源泉이라고 했다. 또 데이비드 험은 이 世上의 모든 것은 労動으로 購買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 두 哲學者の 말로부터 기사받을 수 있는 깊이 生產에 있어 人間의 労動은 가장 크고 중요한 기여를 한다. 그런데 現代資本主義 經濟下의 사정을 보면 労動의 生產力이 資本의 生產力에 비해 덜評價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 말은 資本이 生產의 이리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나만 資本을 所有한다는 事實에 의해 가만 서티란所得을 얻는 소위 不勞所得者의 증가를 경계하는 뜻이다.

勞動價值論은 地代, 利潤, 利子等의 存在要當性을 否定하고 있기 때문에 近代經濟學에 正面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理解된다. 그러나 勞動價值論에 대한 研究는 그 理論을 수용하기 거부하건간에 資本主義經濟를 分析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임에 눈翳없다.

參 考 文 獻

- 根岸隆, 徐錫泰譯, 「經濟學의 歷史」, 法文社, 1985.
 R.L. 니끄, 김재민譯, 「노동가치론의 歷史」, 풀빛, 1985.
 朴基赫, 「經濟學史」, 法文社, 1982.
 富塚良三, 經濟分析入門, 形成社, 1983.

- 웡-비-페르고外, 이니호편역, 「노동가치론 논쟁」, 학민사, 1985.
- J. A. 슌페티, 金民彩譯, 「經濟學史」, 日新社, 1976.
- 에릭슨, 강윤학譯, 「경제사상사」, 끼치군방, 1982.
- 丁海東, 「아담 스미스」, 裕豐出版社, 1982.
- Blaug, M.,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 Dobb, M., Theories of Value and Distribution since Adam Smi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 Gordon, D.F., "Labor Theory of Value", in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Macmillan and Free Press, 1966.
- Hunt, E.K., History of Economic Thought, Wadsworth Publishing Co., 1979.
- Lekachman, R., A History of Economic Ideas, New York.
- Ricardo, D.,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avid Ricardo, edited by P. Sraffa, Vol. I, III,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3.
- Smith, A., An Inquiry into the Natures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Modern Library, 1937.
- Sraffa, P., Production of Commodities by Means of Commod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Stigler, G.J., "The Ricardian Theory of Value and Distribu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Vol. X, June 1952.
- Whittaker, E., A History of Economic Ideas, Green And Co., 1940.